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음 6월 14일) 제209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라감영 선화당 복원 상량식 거행

기둥·대들보 등 세워  
내년 말까지 복원 마무리

전북도와 전주시는 25일 오전 10시에 전라감영 복원공사 현장에서 선화당 복원 상량식을 거행했다. 상량식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이재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원장, 이명우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계인사, 기관단체장, 공사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라감영 복원은 2017년 11월 16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74호 대북장 최기영 씨를 비롯한 많은 전통 건축 장인들이 참여하여 기둥 세우기, 대들보 올리기, 포작(包作) 설치 등 목조 기구재 조립을 마치고 마침내 상량에 이르게 됐다. 선화당 상량식은 길놀이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상량 고유제 및 상량문 봉안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상량 고유제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첫 술잔을 바치는 초헌관을 맡았으며, 두 번째 술잔을 바치는 아헌관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헌관은 이명우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상량문은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에서 복원될 선화당의 가치와 복원



전라감영 선화당 복원 상량식이 열린 25일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현장에서 주축인 나무를 들어 올리는 상량부재가 올라가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운데, 오른쪽)와 김승수 전주시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경위 및 의미 등을 담은 내용으로 지었고, 이를 세계사에 전북비엔날레 총감독 및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민(山民) 이용 선생이 참여했으며, 상량문은 선화당 어간 도리 부재 상부에 넣어 봉안했다. 건물의 건립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는 상량 묵서서는 우리지역의 대표적 서예가인 서홍식 한국서도협회 공동회장 겸 전북지회장이 휘호(揮毫)했다.

앞으로 복원공사는 서까래 설치, 지붕기와 잇기, 미장공사, 창호공사 등을 거쳐 2019년 말까지 총 84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복원대상은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공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복원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며 "전라도 천년 동안

중심이 되어온 우리 전북이 '전북 자존의 시대'를 힘차게 열고, 천년을 이어온 생명력으로 더 크게 웅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감영은 '아시아문화심장터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어갈 핵심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송효철 기자

### 社 告

#### 2018 제8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2018년 7월 28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8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를 오는 28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연맹
- ▶후원: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전주시, 전주매일신문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063-288-9700)

## '기분 좋은 공상' ...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확정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25일 기자회견에서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프로그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소리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열리며 150여회 공연으로 진행된다. 네덜란드, 세네갈,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팔레스타인, 스페인, 터키, 인도네시아, 일본, 타이완 등 18개국에서 온 다양한 뮤지션 등이 참여한다. <관련사진 2면> 조직위는 소리를 통해 연합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공상의 세계를 그려내기 위해 올해 축제의 주제를 '소리 판타지(Sori Fantasy)'로 정했다. 특히 축제의 상징이 된 한국소리문화전당 놀이마당을 '더블 스테이지'로 개발해 동서양 음악, 고금의 음악, 남녀노소의 음악이 실재 없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명인들을 앞을 키즈존으로, 모악당

앞 광장을 리듬 및 플레이존으로 특성화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야외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탈과 판타지의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축제를 전통예술의 원형을 집중 조명하고, 주류 음악세계의 '정형'을 벗어나 동시대 음악의 또 다른 가치를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먼저 소리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 '소리 판타지'는 올해 축제 출연진의 면면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갈라 형식의 콘서트로 진행된다. 올해 역시 매진이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의 5대 굿 시리즈'를 통해 한국전통예술의 원형인 '굿'의 예술적 가치와 민속학적 의미, 무엇보다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150여회 공연 진행

'소리 판타지'를 주제로 소리문화전당 놀이마당 '더블 스테이지'로 개발

한국의 5대 굿 시리즈 트리오 라이제거 프란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여기에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실현과 시도를 펼치고 있는 다양한 음악적 경향을 조망하는 공연도 준비된다. EBS 스페이스공감과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는 '트리오 라이제거 프란예 실라'와 중세음악을 새롭게 해석한 '오도양상'발,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을 잇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일 '문고'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이와 함께 시대 음악가들의 독창적인 시각과 예술적 지향을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배치된다. 조직위가 야심차게 기획한 '한국의

개한다. 폐막공연은 대한민국 대표 국악 관현악단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진다. 전국 6개 국악관현악단 앙상블의 릴레이 공연과 전체 합주 시나위공연으로 축제의 폐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정형을 벗어난 동시대 음악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축제를 준비했다"면서 "무엇보다 소리와 기악, 퓨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 육성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안정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 GOCHANG COUNTY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동천장어와 함께하는~~

# 2018 고창 갯벌 축제

2018. 8. 3 ▶ 5일 (3일간)

고창군심원면 만들갯벌체험학습장

엄마는 아이와  
아이는 아빠따라  
예쁜 여름,  
여행